

공격적 아동과 가장 친한 친구의 친구관계 질*

Friendship Quality of Aggressive Children and Their Best Friends

가톨릭대학교 아동학전공

부 교수 신 유 립**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 of Korea

Associate Professor : Shin, Yoo-L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s among physical, relational aggression and friendship quality and the similarity of perceptions of friendship quality between friends. Moreover, APIM was applied to examine the actor and partner effects of aggression on friendship quality. The subjects were 339 5th grade children recruited from 2 public primary schools located in Gyeonggi province.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friendship quality and both types of aggression. The perceptions of help, intimacy, emotional stability, and conflict between friends were significantly similar. Finally, there were significant self-effects of physical aggression on friendship conflict. Moreover, there were self-and partner-effects of relational aggression on friendship conflict.

▲주요어(Key Words) : 신체적 공격성(physical aggression), 관계적 공격성(relational aggression), 친구관계 질(friendship quality), 친구관계 갈등(friendship conflict)

I. 서 론

학령기에 친밀한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안정적으로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이 시기에 중요한 발달과제중 하나이다. 친구관계는 정서적 지원과 안정감을 제공함으로써 자아 가치감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발달적 기능이 있다(Bukowski & Hoza, 1989). 특히 아동기 후반이 되면 가장 친한 친구와 밀접하고 친밀한 단짝 친구관계(chumship)를 형성하게 되며 이러한 경험은 아동의 자아 정체감의 발달에 도움을 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해주어 적응을 돕는 기능을 한다(Berndt & Perry, 1986).

아동기에 가장 친한 친구와의 친구관계 질은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이다. 친구관계의 질은 친구사이에서 공유하는 활동이 갖는 사회적 기능(social provision)을 의미하며(Berndt, 1996), 친밀감, 동료애, 안정성과 지원하기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갈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포함한다. 이은혜(1999)는 특별하고 의미 있는 친구사이에서 서로 공유하는 활동을 통해 어떤 기능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회 정서적 또는 수단적 요구를 만족시켜주게 되며 이를 친구관계의 질적 측면으로 보았다.

친구관계 질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동의 사회적 행동과 같은 개인 특성은 긍정적 및 부정적 친구관계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Bukowski et al., 1994), 특히 아동기 대표적인 부적응 행동인 공격성과 친구관계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어져 왔다. 공격성은 신체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의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신체

* 본 연구는 2010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주저자 · 교신저자 : 신유립 (E-mail : yoolim@catholic.ac.kr)

적 공격성은 밀기, 때리기, 발로 차기와 같은 신체적 행위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의미한다(Crick & Grotpeter, 1996). 반면에 관계적 공격성은 또래들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고 방해하여 집단에서 배척 또는 소외시키거나 소문내기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사회적 지위에 손상을 주는 공격적인 행위로 정의된다(Crick & Grotpeter, 1996).

공격성과 친구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일부의 공격적인 아동들은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으며 밀접하고 상호적이며 지지적인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있다(Cairns et al., 1988). 공격적인 아동은 인정하기, 동료애, 돕기, 갈등과 같은 친구관계 질에서 일반 아동과 차이가 없다(Grotpeter & Crick, 1996). Connolly 등(2000)의 연구에서는 언어적, 신체적으로 공격적인 아동은 비공격적인 아동과 비교해볼 때 친구관계 내에서 유사한 친밀감 수준을 보였다. 관계적 공격 성향을 보이는 아동들은 사회적 지위 집단에서 또래들로부터 수용과 거부를 동시에 받는 논란이 되는 집단인 경우가 많으며, 또래 집단 내에서 다른 아동들에게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의 정도가 높다(Crick & Grotpeter, 1996). 관계적 공격성의 특성상 다른 아동들을 괴롭히는 행동은 이에 동조하는 또래의 지원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으므로 관계적 공격 성향을 보이는 아동들의 친구관계는 전형적으로 친밀하고 배타적인 특성을 보인다(Crick & Grotpeter, 1996). 또한 친구관계가 공고해진 후에 관계적 공격 성향이 더욱 확연하게 나타나며 따돌림의 위협 때문에 친구관계가 종결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다르게 공격적 아동의 친구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공격적인 아동의 친구관계에서는 갈등의 발생 빈도가 높고 친근감 정도가 낮으며 친구들 사이에서 서로에게 높은 수준의 관계적 공격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Grotpeter & Crick, 1996). Rose와 Asher(1999)는 친구와의 갈등이 발생하는 가상적 상황을 제시하고 이 상황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전략을 분석해본 결과, 공격적인 아동들은 적대적인 전략을 사용하여 갈등을 해결하였으며 실제 상황에서도 가장 친한 친구와 높은 수준의 갈등을 보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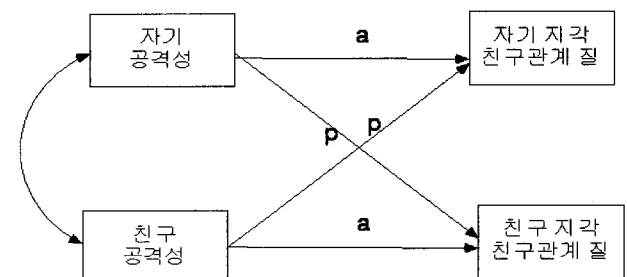
친구는 두 명 아동 사이의 상호 선호하는 관계에서 형성되므로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상호 공유되는 이해를 갖는 것이 필수적이다(Hartup & Stevens, 1997). 따라서 아동과 친구가 지각한 친구관계 질에 대한 상호 일치되는 정도는 관계의 특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측면이 될 수 있다. 친구관계 질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친구의 지각에 대한 상호 유사성 정도는 이러한 지각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다(Simpkins et al., 2006). 선행연구를 보면 초등학교 2학년에서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친구관계 질의 하위 척도 중 밀접성, 갈등, 갈등해결에서 아동과 친구의 지각에서의 유사성 정도는 평균 $r=.20$ 이었다(Brendgen et al., 2000). Buhrmester(1990)의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교 5, 6학년에서 중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친구관계 질에 대한 아동과 친구의 지각에서 유사성을 비교해 본 결과, $r=.38$ 에서 $r=.81$ 이었으며 이는 발달에 따라 친구관계 질에 대한 유사성의 정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Brendgen 등(2000)은 사회적 지위에 따라 아동들을 인기, 평균 및 거부 집단으로 구분하고 친구관계 질에서의 유사성을 비교해 본 결과, 인기 집단과 비교하여 거부 집단의 아동들과 친구사이의 친구관계 질의 유사한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거부 집단 아동들이 보이는 공격적 행동 특성과 인지적 왜곡 성향으로 인하여 친구관계 질에 대해 친구와 공유된 이해를 갖기 어렵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친구관계 질에 대한 지각의 차이는 친구사이의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상호 간의 기대에 대한 불일치를 의미하므로 친구관계가 조기에 종결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아동과 친구 사이에 친구관계 질에 대한 지각의 유사성 정도는 아동이 친구관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측면이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수행된 친구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친구관계 질의 유사성을 살펴본 연구는 소수이며 특히 공격적인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는 부족하다.

친구관계에 질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을 보면 개별 아동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과 분석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친구관계 질은 두 명 아동 사이의 상호작용 경험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개별 아동이 아닌 아동과 친구로 구성된 쌍(dyad)을 연구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Cook과 Kenny(2005)는 친구관계와 같이 상호 의존성에 기초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자기 및 상대방 상호 의존성 모델(APIM: Actor-Partner Interdependent Model)을 제안하였다. <그림 1>과 같이 APIM은 친구관계를 이루는 두 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특성이 자기에게 미치는 자기 효과(actor effect)와 친구에게 미치는 상대방 효과(partner effect)를 분석하게 된다. APIM은 구조방정식(SEM)이나 다층모형(HLM)을 사용하여 자료가 분석될 수 있다.

아동들은 친밀한 친구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서로 관심사를 공유하고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친구들과 사이에 의견 충돌과 같은 갈등이 발생되었을 때 원만한 해결을



<그림 1>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델(APIM)

a: 자기 효과(actor effect) p: 상대방 효과(partner effect)

위해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Bukowski et al., 1994). 이러한 친구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특성에 기초해 볼 때, 아동의 공격적인 성향은 친구관계 경험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에 관련된 선행연구결과는 비일관적 이므로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요구된다.

친구관계는 또래 집단의 거부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주는 요인이다. 아동의 공격성은 또래 집단의 거부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행동특성이므로 공격적인 아동들이 어떤 친구관계를 경험하는가는 이러한 아동들의 적응을 위해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격적인 성향의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의 친구관계가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친구관계 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아동의 공격성과 친구관계 질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친구관계 질에 대한 지각의 유사성을 측정하여 친구관계의 공유된 경험에 대한 이해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아동의 신체적 및 관계적 공격성과 친구관계 질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공격적 하위 집단을 선별하고 상관관계 분석을 사용하여, 이 아동들과 가장 친한 친구의 친구관계 질에 대한 지각에서의 유사한 정도를 살펴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친구관계의 상호적 특성을 고려해볼 때 친구관계 질은 아동뿐만 아니라 친구의 특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으므로 APIM을 적용하여 공격성이 친구관계 질에 미치는 자기 영향과 상대방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 하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아동의 공격성과 친구관계 질은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친구관계 질에 대한 공격적 아동의 지각과 가장 친한 친구의 지각은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공격성이 아동의 친구관계 질에 미치는 자기 및 상대방 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에 위치한 초등학교 두 곳의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두 곳의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급을 대상으로 자료가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에 응답이 불충분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 연구 대상은 339명이며 남여 아동을 비율을 보면 남자는 193명(56.9%)이었으며 여자는 146명(43.1%)이었다.

2. 연구도구

1) 아동의 신체적 및 관계적 공격성

본 연구에서 아동의 공격성은 Schwartz 등(2002)의 연구에서 사용한 *Peer Nomination Index(PNI)*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학급 아동의 전체 이름이 기재된 명단을 각 아동에게 배부해주고 PNI를 이용하여 각 문항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에 적합한 아동을 본인은 제외하고 학급에서 3명씩 지명하도록 하였다. 공격성은 신체적 공격성 3개 문항(예: 다른 아이들을 밀거나 때리는 사람)과 관계적 공격성 3개 문항(예: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내는 사람)을 포함한 총 6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공격성 점수는 각 문항을 합산하여 학급의 또래로부터 지명된 빈도를 계산하고, 이 점수를 각 학급별로 Z 점수로 변환하였다.

2) 아동의 가장 친한 친구 및 친구관계 질

가장 친한 친구를 알아보기 위해 아동에게 학급에서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 한명을 지명하여 이름을 적도록 하였다. 또한 아동이 지명한 가장 친한 친구와의 친구관계 질을 측정하기 위해 이은혜와 고윤주(1999)의 친구관계 질 척도(FQS: Friendship Quality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 보고법으로 측정되며 다음과 같은 하위 8개 척도로 구성된다. 긍정적인 질은 인정(예: OO는 너에게 똑똑하다고 말해주니?) 도움(예: 네가 필요로 할 때 OO는 네 부탁을 들어 주니?), 친밀감(예: 너는 OO에게 비밀을 이야기 하니?), 교제의 즐거움(예: 너는 OO와 함께 있는 것이 좋으니?), 정서적 안정(예: 너에게 걱정거리가 있으면 OO는 너를 안심시켜주니?), 만족감(예: 너는 OO와 친구라서 행복하니?)의 6개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정적인 질은 갈등(예: 너는 OO와 말다툼을 하니?)과 경쟁(예: 너는 OO보다 더 잘하려고 애쓰니?)의 2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각 하위 척도별 4문항으로 총 3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FQS는 4점 척도이며 전체 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93이었다.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선정된 학급별로 12월인 2학기 말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아동학을 전공한 훈련된 연구보조원이 각 학급을 방문하여 설문지 작성에 대한 설명 후 아동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그 자리에서 설문지를 완성한 다음 수거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연구 문제 1>과 <연구문제 2>는 상관관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문제 3>은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III. 연구결과

1. 측정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본 연구의 측정변인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1>과 같다. Z점수로 계산된 공격성 점수를 보면 신체 공격성은 -.011, 관계 공격성은 .014이었다. 친구관계 질의 하위영역별 평균점수를 보면 도움, 친밀감, 인정, 교제 즐거움, 정서안정, 만족감은 2.498에서 3.4484점의 범위로 4척도에서 중간 이상의 점수로 나타났다. 갈등과 경쟁의 평균은 각각 1.725와 1.921로 중간 이하의 점수로 나타났다.

<표 1> 측정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 인	M	SD
공격성(Z점수)		
신체 공격성	-.011	.966
관계 공격성	.014	.987
친구관계 질(4점 척도)		
도움	2.903	.706
친밀감	2.706	.860
인정	2.498	.788
교제 즐거움	3.433	.633
정서안정	2.927	.822
만족감	3.448	.639
갈등	1.725	.713
경쟁	1.921	.886

2. 아동의 공격성과 친구관계 질의 상관관계

또래 지명법으로 측정된 신체적 및 관계적 공격성과 자기 보고법으로 측정된 친구관계 질의 관련성을 상관관계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제시된 공격성과 친구관계 질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신체적 공격성은 갈등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으며, 친구관계의 다른 하위척도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관계적 공격성의 경우에도 신체적 공격성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갈등과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 친구관계 질의 다른 척도와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즉 신체적 및 관계적 공격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가장 친한 친구와의 관계가 갈등적이라고 지각할 수 있다. 반면에 공격성의 두 가지 하위 유형과 친구관계의 긍정적인 척도 및 경쟁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3. 친구관계 질에 대한 공격적 아동의 지각과 가장 친한 친구의 지각 간 상관관계

전체 연구 대상 아동 중 공격성 아동 집단을 선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Grotperter & Crick, 1996)에 기초하여 또래 지명법으로 측정된 신체적 공격성 점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이상 집단을 신체적 공격성 집단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신체적 공격성 집단의 아동 수는 총 98명이었으며, 관계적 공격성 점수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관계적 공격성에 적용한 결과, 총 114명의 아동이 관계적 공격성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선정된 각 집단을 대상으로 자기 보고법에 의해 측정된 친구관계 질에 대한 공격적 아동의 지각과 가장 친한 친구의 지각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2> 공격성과 친구관계 질의 상관관계

(N=339)

공격성	도움	친밀감	인정	교제 즐거움	정서안정	만족감	갈등	경쟁
신체 공격성	.045	-.001	.051	-.064	.020	-.043	.146**	.031
관계 공격성	.073	.007	.068	-.017	.055	.008	.172**	.077

**p<.01

<표 3> 친구관계 질에 대한 공격적 아동의 지각과 가장 친한 친구의 지각 간 상관관계

집 단	도움	친밀감	인정	교제 즐거움	정서안정	만족감	갈등	경쟁
신체 공격집단 (n=98)	.480***	.459***	.190	.204	.309**	.162	.322**	.064
관계 공격집단 (n=114)	.297**	.404***	.119	.196	.363***	.146	.284**	.044

p<.01, *p<.001

<표 3>에 의하면 신체적 공격 집단인 경우, 친구관계 질의 하위척도 중 도움, 친밀감, 정서 안정 및 갈등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는 아동과 가장 친한 친구 사이의 지각이 상호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관계적 공격성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신체적 공격성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반면에 두 집단 모두에서 인정, 교제 즐거움, 만족감 및 경쟁에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이는 이러한 하위척도에 대해서 지각이 유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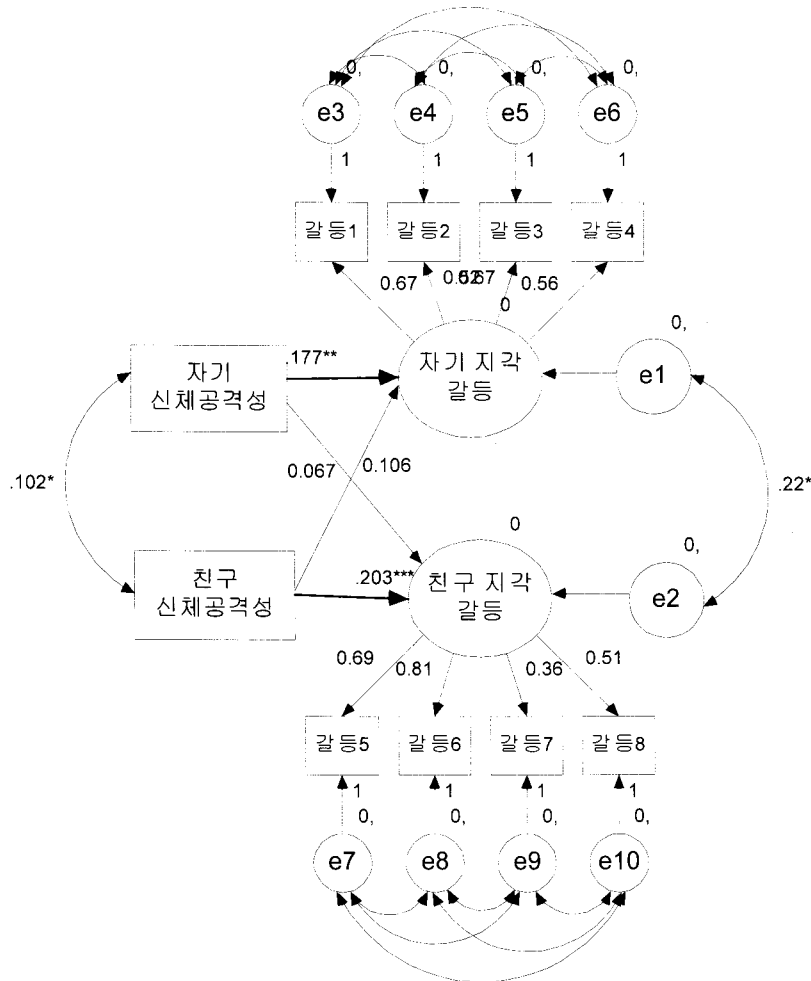
4. 공격성이 아동의 친구관계 질에 미치는 자기 및 상대방 효과

신체적 공격성이 아동의 친구관계 질에 미치는 자기 및 상대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모델을 분석한 결과, 친구관계 질의 하위 척도 중에서 갈등만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었다. 따라서 아동의 공격성과 가장 친한 친구의 공격성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갈등을 종속변인으로 한 구조방정식 모델을 <그림

2>와 같이 설정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chi^2(48.8, df=22, p<.01)$ 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CFI=.969, TLI=.923, RMSEA=.060으로 전반적으로 적합도가 적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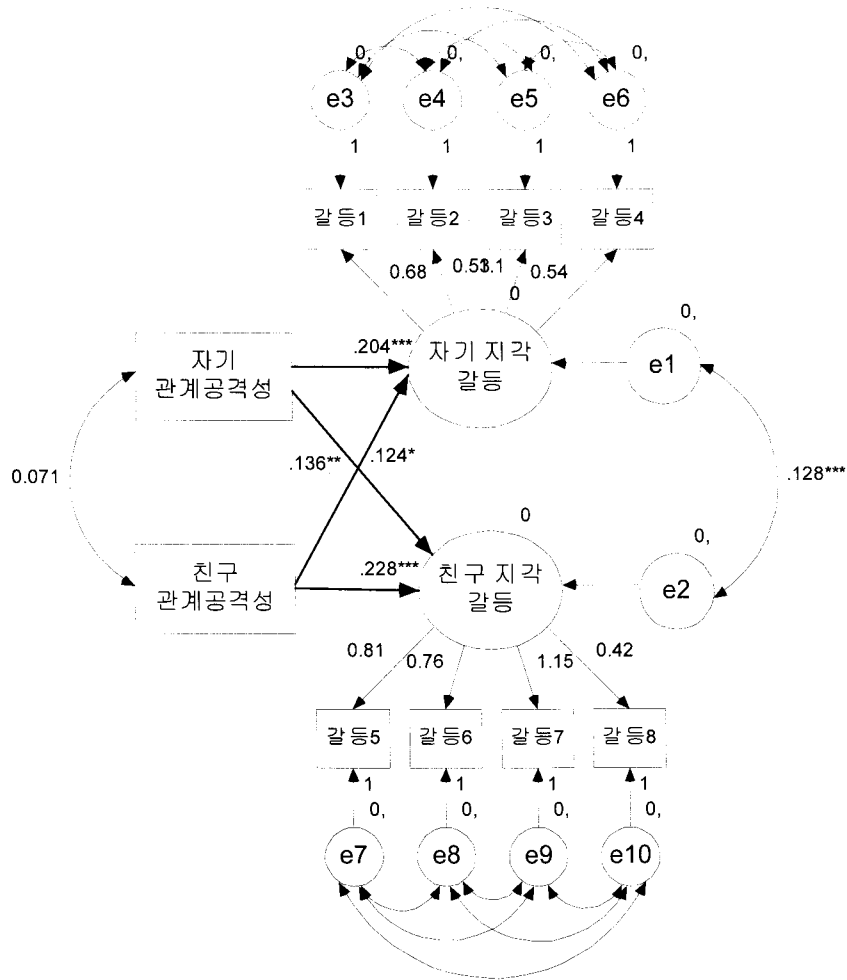
<그림 2>에 제시된 모델을 보면, 자기 신체적 공격성은 자기가 지각한 친구관계 갈등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다. 또한 친구의 신체적 공격성은 친구가 지각한 친구관계 갈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신체적 공격성이 갈등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효과만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관계적 공격성이 아동의 친구관계 질에 미치는 자기 및 상대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모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신체적 공격성과 마찬가지로 친구관계 질의 하위 척도 중에서 갈등만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었다. 갈등에 대한 모델을 분석한 결과, $\chi^2(39.1, df=20, p<.01)$ 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적합도 지수는 CFI=.978, TLI=.939, RMSEA=.053으로 전반적으로 적합도가 적절하였다. <그림 3>에 제시된 모델을 보면, 자기 관계적 공격성은 자기가 지각한 친구관계 갈등에 유의미한



<그림 2> 신체적 공격성의 친구관계 갈등에 대한 자기 및 상대방 효과

*p<.05, **p<.01, ***p<.001



<그림 3> 관계적 공격성의 친구관계 갈등에 대한 자기 및 상대방 효과

*p<.05, **p<.01, ***p<.001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친구가 지각한 갈등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친구의 관계적 공격성은 친구가 지각한 갈등뿐만 아니라 자기 지각 갈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관계적 공격성이 친구관계 갈등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 효과와 더불어 상대방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본 연구는 아동의 신체적 및 관계적 공격성과 친구관계 질의 관련성을 규명하고 공격적 하위 집단을 선별하여 이 아동들과 가장 친한 친구의 친구관계 질에 대한 지각에서의 유사한 정도를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APIM을 적용하여 공격성이 친구관계 질에 미치는 자기 영향과 상대방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별로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적 및 관계적 공격성과 친구관계 질의 상관관계

결과를 보면, 공격성 하위 유형과 갈등은 관련성이 유의미하였으며, 이는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아동들은 친구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하는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갈등을 제외한 친구관계의 다른 하위척도와는 관계가 없었으며 이는 최미경(2005)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해볼 때, 공격적인 아동들은 친구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친구관계의 중요한 발달적 기능은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해보고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다(Newcomb & Bagwell, 1995). 본 연구결과는 공격적인 아동들의 경우 이와는 다르게 친구관계가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며 사회적 기술을 학습하기보다 갈등과 같은 부적응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맥락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갈등적인 친구관계는 친구관계의 고유한 경험으로 기대되는 친사회적 기술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으며 공격성이 유지되거나 강화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친구사이의 갈등은 관계가 쉽게 종결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친구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배우는데 더욱 어려운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는 상관관계 분석에 의한 결과이므로 공격성과 갈등 간 방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며, 종단적 연구 설계에 기초한 추후연구에서 이러한 방향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격적 아동을 대상으로 친구관계 질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가장 친한 친구의 지각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친구관계 질의 하위척도 중 도움(예: 내가 필요로 할 때 oo는 네 부탁을 들어주니?), 친밀감(예: 너는 oo에게 비밀을 이야기 하니?), 정서 안정(예: 내가 슬플 때 oo는 위로해 주니?) 및 갈등(예: 너는 oo와 말다툼을 하니?)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상관관계는 유사성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Simpkins et al., 2006), 이러한 하위척도에서는 아동과 친구 간의 지각이 상호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impkins 등(2006)은 친구관계 질의 하위척도에서 비교적 객관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척도에 대해서 아동과 친구의 지각이 유사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하위 척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하위 척도들과 비교해볼 때, 객관적인 내용을 측정하는 문항이므로 비교적 아동과 친구 사이의 지각이 유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척도 내용의 객관성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2학기 말에 자료수집이 실시되었으므로 친구관계인 아동들 사이에 친밀하고 충분한 상호작용의 경험으로 인하여 객관적인 항목을 측정하는 척도에 대해서 아동과 친구가 상호 유사한 이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 시기에 발달하는 사회적 조망기술과 관련 시켜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아동이 자신에서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으며 점차 제 3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단계로 전이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사회인지적 기술의 발달을 기초로 하여 아동들은 단짝 친구와 자신의 생각, 감정 및 경험을 함께 나누며 친구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확장시킬 수 있게 된다(Diaz & Berndt, 1982).

반면에 인정, 교제 즐거움(예: 너는 oo와 함께 있는 것이 좋으니?), 만족감(예: 너는 oo와 친구라서 행복하니?)과 같은 척도는 아동의 주관적인 평가나 정서에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는 척도임을 고려해 볼 때 아동과 친구의 지각 간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친구관계 질에 대한 지각이 상호 유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관계 질 연구에서 한 명 아동의 지각에 의존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상대방 친구는 이러한 관계에 대한 지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자료 수집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연구결과는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하위 척도 중 만족도에 대한 아동과 친구의 지각의 일치 정도가 낮다는 것은 친구관계

인 두 명의 아동 중 한 명은 관계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반면에 상대방은 불만족스러움을 느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만족감에 대한 불일치는 관계에 대한 기대가 상호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장기적인 입장에서 관계가 지속되는 정도를 반영하는 안정성 측면에서 볼 때 관계가 쉽게 종결될 수 있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자기 및 상대방 상호 의존성 모델을 사용하여 공격성이 친구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친구관계 질의 하위 척도 중 갈등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신체적 공격성에 대한 결과를 보면, 자기 효과만이 유의미하였으며 이는 아동이 지각한 친구관계 갈등의 원인이 자신의 신체적 공격 성향에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관계적 공격성의 경우에는 자기 및 상대방 효과가 유의미하였으며 이는 아동뿐만 아니라 친구의 관계적 공격성 특성이 친구관계 갈등에 함께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적 공격성의 특성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일반 아동의 친구관계와 비교해 볼 때 관계적으로 공격적인 아동은 가장 친한 친구관계 내에서도 관계적 공격 행위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Grotperter & Crick, 1996). 예를 들어, 관계적 공격 성향의 아동들은 친밀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친구의 비밀을 이용하여 소문내기 같이 관계를 위협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예: '내가 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 좋아한다고 그 사람에게 말할 거야.')(Murray-Close et al., 2007). 또한 이러한 아동들은 자신의 친구관계망(friendship network)에 속해 있는 친구 한 명을 지목하고 다른 친구들과 이 친구를 의도적으로 따돌리는 가해 행동을 보임으로써 친구를 관계적 공격성의 피해 대상으로 만드는 행위를 가하며 이를 통하여 친구들 사이의 응집력과 결속을 강화하기도 한다(Murray-Close et al., 2007). 친구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관계적 가해 행위를 고려해 볼 때, 자신뿐만 아니라 친구의 관계적 공격성 성향도 친구관계 갈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격적인 아동들은 가장 친한 친구와 관계에 대해서 갈등의 정도가 높다고 지각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친구관계 질 측면에 대해서 상호 공유된 이해를 기초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격성이 친구관계 갈등에 미치는 자기 및 상대방 영향은 공격성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친구관계 갈등이 학령기 아동의 경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는 친한 친구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상호작용으로 친구관계의 전반적인 질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Bowker et al., 2007) 아니면 관계의 부적응적인 특성을 반영하는지를 규명하는 심도 있는 연구가 요망된다.

또한 본 연구는 공격적 특성이 친구관계의 맥락에서 갈등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을 유발하는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친구관계 질에 대한 주관적이거나 정서적인 측면에 대한 지각의 유사성 정도가 낮은 것은 친구관계에 대한 이해와 기대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요인이 친구관계에서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Brendgen et al., 2000).

본 연구결과는 학령기 친구관계의 기능을 보다 심도 있게 규명하기 위해서 아동의 사회적 행동 특성과 친구관계의 질과 같은 다양한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또한 공격적인 아동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서 공격적 아동의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는 개인적인 차원의 접근뿐만 아니라 이 아동들이 상호작용하는 친구 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 설계에 기초하여 얻어진 결과이므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인과관계로 해석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종단적 연구 설계를 기초로 인과관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종단 연구를 통해 자료가 수집된 현시점에서 맺고 있는 친구관계 뿐만 아니라 친구관계가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를 측정하는 안정성의 측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실제 공격적인 아동의 친구관계 경험과 양상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에는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관찰법을 적용하여 공격적 아동들과 친구 사이의 상호작용 특성을 질적으로 분석해보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격성과 심리사회적 부적응 사이의 관계에서 친구관계 질의 중재적인 영향을 분석해봄으로써 친구관계의 보호적인 기능을 규명해보는 추후 연구가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추가분석으로 연구문제 별로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추후에는 보다 많은 연구 대상을 표집 하여 남녀 아동 별로 공격성의 유형과 친구관계 질의 관련성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해보는 연구가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이은혜(1999). 아동의 친구관계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3), 77-95.
- 이은혜 · 고운주(1999). 학령기 아동을 위한 친구관계의 질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2), 225-242.
- 최미경(2005). *학령기 아동의 친구관계 질과 사회적 행동의 관련성*.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Berndt, T. J.(1996). Exploring the effects of friendship quality on social development. W. M. Bukowski, A. F. Newcomb, & W. W. Hartup(Eds.),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 in children and adolesc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rndt, T. J., & Perry, T. B.(1986). Children's perceptions of friendships as supportive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22(5), 640-648.
- Brendgen, M., Little, T. D., & Krappmann, L.(2000). Rejected children and their friends: A shared evaluation of friendship quality? *Merrill-Plamer Quality*, 46(1), 45-70.
- Bowker, J. C., Rubin, K. H., Rose-Krasnor, L., & Booth-LaForce, C.(2007). Good friendship, bad friends: Friendship factors as moderators of the relation between aggression and social information procession.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4(1), 1-20.
- Buhrmester, D.(1990). Intimacy of friendship,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adjustment during preadolescence and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1(5), 1101-1111.
- Bukowski, W. M., & Hoza, B.(1989). Popularity and friendship: Issues in theory, measurement, and outcome. In T. J. Berndt & G. W. Ladd (Eds.), *Peer relationship in child development*. N.Y.: Wiley.
- Bukowski, W. M., Hoza, B., & Boivin, M.(1994). Measuring friendship quality during pre- and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Relationships*, 11(3), 471-484.
- Cairns, R. B., Cairns, B. D., Neckerman, H. J., Gest, S. D., & Garipey, J. L.(1988). Social networks and aggressive behavior: Peer support or peer reje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6), 815-823.
- Connolly, J., Pepler, D., Craig, W., & Taradash, A.(2000). Dating experiencers of bullies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 299-310.
- Cook, W. L., & Kenny, D. A.(2005).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 model of bidirectional effects in developmental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2), 101-109.
- Crick, N. R., & Grotpeter, J. K.(1996).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6), 710-722.
- Diaz, R. M., & Berndt, T. J.(1982). Children's knowledge of a best friend: Fact or fancy? *Developmental Psychology*

- chology*, 18(6), 787-794.
- Grottpeter, J. K., & Crick, N. R.(1996). Relational aggression, overt aggression, and friendship. *Child Development*, 67, 2328-2338.
- Hartup, W. W., & Stevens, N.(1997). Friendships and adaptation in the life course. *Psychological Bulletin*, 121(2), 355-370.
- Murry-Close, D., Ostrove, J. M., & Crick, N. R.(2007).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of growth of relational aggression during middle childhoo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9(1), 187-203.
- Newcomb, A. F., & Bagwell, C. L.(1995). Children's friendship relation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7(2), 306-347.
- Rose, A., & Asher, S.(1999). Children's goals and strategies in response to conflicts within a friend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35(1), 69-79.
- Schwartz, D., Farver, J., Chang, L., & Lee-Shin, Y.(2002). Victimization in south Korea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0(2), 113-125.
- Simpkins, S. D., Parke, R. D., Flyr, M. L., & Wild, M. N.(2006). Similarities in children's and early adolescents; perceptions of friendship quality across development, gender, and friendship quality.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6(4), 491-508.

- 접수일 : 2011년 03월 10일
- 심사일 : 2011년 04월 04일
- 심사완료일 : 2011년 06월 20일